

대덕벤처, 이웃과 공동연구 개발 '러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보다 시장성 있고 기술력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의 공동 연구개발 현상은 주로 '대덕밸리협동화단지' 출신 기업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협동화단지 설립이래 1년만에 본격적인 협력 물꼬가 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4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안기기 전문 벤처기업 메닉스(대표 이상수)는 지난달 18일 대덕밸리협동화단지에 있는 맥스웨이브(대표 안동식) 사옥으로 일부 사업부를 이동시켰다.

메닉스가 직원수 절반에 해당하는 14명의 인력을 맥스웨이브로 이동시킨 이유는 보안기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다.

보안 무선제품을 생산중인 메닉스는 전파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전파기술 전문 업체인 맥스웨이브의 기술적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 일부를 아예 옮긴 것이다.

앞으로 메닉스는 맥스웨이브와 전파관련 계측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건물 1, 2층 공간을 각각 절반씩 사용하고 있다. 메닉스 이

상수 대표는 "업체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회사의 보안사업부 이동을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 맥스웨이브의 전파기술을 접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밸리에서는 지난 8월 결성된 'e-시큐리티 클러스터'에 이어 '영상 클러스터(가칭)'가 결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43미디어텍(대표 이명진)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간 공동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상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 역시 대덕밸리협동화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 클러스터는 동영상, 음성인식, 디지털 사운드 칩 등의 기술을 통합해 차세대 영상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5~6개 연구개발 중심업체와 1개의 마케팅업체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명진 대표는 "현재 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해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가시적인 공동 연구개발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원자력밸리내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분야 공동 연구개발 구축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신제품 · 신기술 ■

아날로그칩스, 디지털 오디오용 광송수신 칩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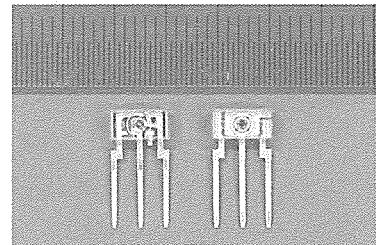
대덕밸리 아날로그 ASIC 전문 벤처기업 아날로그칩스(대표 송원철)는 2V~5V 범위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프리볼트용 '디지털 오디오용 광송수신 칩'을 개발,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 칩은 5V와 3V용 칩 등 저전압용으로 별도 개발해 왔던 광송수신칩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으로 저전압 휴대형 기기에 필요한 2V이하의 초저전압기능까지 동시에 구현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DVD 플레이어, 홈시어터, 셋톱박스 등 5.1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화해 송수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칩은 2~5V(광송수신칩)과 1.6~5V(광수신칩)전원전압대역에서 동작하는 세계 최초의 프리볼트용이다.

또한 기존 바이폴라(Bipolar)공정 대신 CMOS(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공정을 사용해 기존 제품에 비해 칩크기와 소비전류, 동작속도 등을 30% 이상 향상시켰다.

회사측은 이 칩의 국산화로 휴대용 멀티미디어 제품과 DVD플레이어 등 최신 정보통신기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칩은 국내 대기업과 일본, 중국 등에 사용승인을 받아 놓았으며 일부 기업에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송원철 대표는 "국내외 시장을 주 타깃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 내년 150만발 이상의 수출을 올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칩 형태 뿐만 아니라 투명 패키지와 서터타입 모듈형태로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